

방송국의 옛터, 시민문화공간 되다

남원시, 문체부 공모산업에 옛 KBS 남원방송국 선정 따라 문화예술 창작공간 등 지난 10월부터 사전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는 2016년도 문체부 공모산업(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에 남원방송국이 선정돼 국비14억 등 총 51억원을 들여 시민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은 목공예 체험.

KBS남원방송국은 1952년 개국한 이래 지리산권 주민들의 삶과 애환을 담아오다가 지난 2004년 방송국 개편작업으로 방송문화센터로 격하되면서 방치되던 시설공간이었다.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남원시는 2016년도 문체부 공모산업(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에 남원방송국이 선정되어 국비 14억 등 총 51억원을 들여 시민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사전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 시민문화예술 파일럿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이카데미, 문화예술 관제스튜디오, 사운드아트스트 레지던시를 진행해오고 있다.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은 예술인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작품활동과 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학술연구, 세미나, 포럼, 국악, 댄스, 무용, 악기 등 약 60개단체 1500여명이 활용했다. 시민문화예술 파일럿 프로그램 등은 지역

시민 문화예술분야 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아트가든, 영상제작 등 지역민이 주도적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아트센터내 시민들이 직접 손바닥 정원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아트센터 TF팀에서는 아트센터 사업을 총괄기획하고 장기운영계획을 수립할 총괄기획자를 공개 채용 공고중이다. 공고기간은 19일까지 아트센터 사무국(국KBS)에서 18일~19일간 접수를 받는다. 공고문은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내 시정소식(시협/재용)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도시아트센터조성TF팀(634-7320)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국제문화교류사업 본격 추진

고조영 1인극 '염쟁이 유씨' · 차복순 '동초제 흥보가' 중 상해 공연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16일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관소리 '동초제 흥보가'와 연극 '염쟁이 유씨' 공연을 선보인다.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지난 6월 중국 상해 운아르페(대표 박상운)와의 MOU 체결에 따른 것이다. 국제문화교류사업은 도내 문화예술인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창작기반을 확대하고 문화를 통한 민간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재단은 첫 번째 문화교류지역인 중국 상해를 시작으로 매년 전북의 자매·우호 협력지역과 도내 문화예술인의 교류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되는 연극 '염쟁이 유씨'는 조상

대대로 사채 수습을 업으로 해온 염쟁이 유씨의 독백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작품이다. 이는 1명의 배우가 15인 역을 소화하는 1인극(모노드라마)으로 무대에는 고조영이 출연한다. 관소리 공연에선 차복순 명창이 '동초제 흥보가'를 들려줄 예정이다. '동초제 흥보가'는 김연수-오정숙-이일주로 전승되는 바다. 동초 김연수(1907~1974) 명창은 자유분방했던 옛 판소리를 근대 청중의 취향에 맞게 정형화시켰다. 재단 관계자는 "국제문화교류사업을 통해 전북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세계인에게 알리는데 아낌없는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배우 고조영



차복순 명창

장르 제한 없다... 전주국제영화제, 지역영화 공모 접수

내년 1월 31일까지... 영화제 개최 이전 국내 미상영작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4일 제19회 영화제에 상영될 지역영화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작품은 40분 이상의 장편, 40분 미만의 단편으로 구분하며 장르의 제한은 없다. 공모 자격은 전북에 주소를 둔 일반인과 전북권 대학 재학생이 작품을 낼 수 있으며 전

북 지역에서 50% 이상 촬영한 작품이어야 한다. 공모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영화제 개최 이전 국내에 상영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한다.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는 2018년 5월 3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김민근 기자

전북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하나로

고하 최승범 시인 · 전북중앙신문 조석창 기자 '신전라박물관' 펴내

고하 최승범 시인이 전북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데 묶은 '신전라박물관' (시간의 물레)을 펴냈다. 저서에는 때론 평범한 것, 가끔은 역사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들이 최승범 교수의 시적언어로 빚어져 있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삶과 함께한 것들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들을 담아내기에 그리 낯설지 않다. 책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생활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곳까지 곳곳을 소개한다. 소재지는 100편의 시 중 유일하게 '견훤왕릉'만 충청도 일 뿐 99편은 모두 전북에 지리하고 있다. '신전라박물관'은 지금은 사라져 흔적조차 없는 전주 선녀미나리밭이나 모악산 밑 탕재나무 등 다루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비록 예전 모습과 달라졌어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들을 통해 전북의 변화된 모습을 상기하고, 또 행거보는 소중한 기회를 전한다. 책에는 시와 함께 관련 글과 사진을 수록했다. 이는 함축적 언어로 표현된 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전북중앙신문 조석창 기자가 함께 했다. 또 '신전라박물관'의 제호는 전북 유명 서예가 신민 이용이 썼다. 저자는 "신전라박물관은 프랑스 르노와르 박물관처럼 전북의 모든 것을 담고 싶었다"며 "이런 작업을 또다시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소소한 일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



하는 것은 멋진 작업이었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남원 출신인 고하 최승범 교수는 1958년 현대문학에 시조를 발표하며 문단에 등단했으며 전북문인협회장, 전북예총 회장, 한국언어문화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음시조문학상, 한국현대시인상, 가람시조문학상, 한국문학상, 목정문학상, 민족문학상, 제1회 한국시조대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 '한국시조문학연구', '남원의 향기' 등과 함께 시집 '난 앞에서', '자연의 독백' 등이 있다. 글을 쓴 조석창 기자는 현재 전북중앙신문 문화부에 근무 중이며, 2015년 전북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해은 기자

안도 시인, 아동문학작가상 수상자 선정

안도(전북문인협회 회장·사진) 시인이 한국 아동문학회가 주관하는 제40회 '한국아동문학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동시 한상 차림'이다. 한국아동문학회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취지로, 박목월, 이원수, 윤석중 등이 1953년 창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문학단체, 매년 초 지난해 가장 우수한 작품을 펴낸 동시와 동화 작가



안도 시인

1명씩을 발굴해 상을 주고 있다. 이상현 심사위원장은 "동심을 잘 잡아내 실감 있게 표현하여 가슴에 와 닿는 시집"이라고 평했다. 안 시인은 "아동문학 창작이 어린이만을 위한 문학범주로 남는 것에 반대한다"며 "아름다운 동심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창작활동에 매진할 것" 수상소감을 밝혔다. 안도 시인은 월간문학과 표현문학에서 평론 부문으로 등단했다. 한국아동문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전라북도 국어진흥회 부회장, 전라북도 예총 수석 부회장, 전북문인협회 회장, 전북문화관 관장으로 재임 중이다. 시상식은 내년 1월 20일 한국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12월 둘째주 상영작 공개

진실과 삶의 끝자락과 마주하다

'세번째 살인' · '엘리스 헤지나' ·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진실과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들과 마주하는 영화 3편 '세 번째 살인' '엘리스 헤지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를 12월 둘째 주로 개봉·상영한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신작 '세 번째 살인'은 승리밖에 모르는 변호사 시게모리가 자신을 해고한 공장 사장을 살해하여 사형이 확실시되고 있는 미스미의 변호를 맡게 되면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그동안 따뜻한 가족영화를 만들어 오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전작들의 틀에서 벗어나 연출한 첫 작품으로, 영화는 살인 사건이라는 소재를 통해 진실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 후쿠야마 마사하루, 야쿠쇼 코지가 주연을 맡아 관객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1970년대를 풍미했던 브라질 국민가수 엘리스 헤지나의 열정적인 삶과 음악을 그린 '엘리스 헤지나'는 19살의 나이에 리우데자네이루 경연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36살 약물중독으로 사망하기까지 그녀의 실제 삶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영화는 그녀의 성공에 가려진 비극적인 삶과 당대 브라질의 아픈 시대상을 담았으며, 엘리스 역을 맡은 안드레이 아 오르타의 명연기가 돋보인다.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상영당시 매진 기록하며 관객들의 기대를 모은 작품이다. 또 한편의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는 시골 마을의 이발사가 예고 없이 시작된 생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앞두고 일생일대의 계획을 세우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작품은 엉뚱하지만 사려 깊은 인물들을 통해 담담하지만 경쾌하며, 슬프지만 유쾌한 화법이 어우러진 이야기로 그려졌다. 흑백영화 특유의 감성을 살린 영상미에 블루스 뮤지션 하현진이 작곡한 OST가 어우러지면서 연말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작품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대형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을 수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ff.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사진 위쪽부터 아래로)세번째 살인, 엘리스 헤지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장수 출신 판소리 꿈나무 최재명·최보길, 서울 국악콘서트에 초대대

장수 출신의 판소리 꿈나무 최재명(18, 남원 국악고 2)과 최보길(16, 국립국악중 3)이 서울 국악 콘서트에 초대돼 기량을 뽐냈다. 문화체육관광부·(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후원하고 경서도소리포럼(대표 한윤정)이 주최하는 '인문학과 아리랑의 만남, 아리랑콘서트'에 초청받은 것. 아리랑 콘서트는 오는 17일 오후 5시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 남매인 최재명과 최보길양은 창극 형태로 춘향가 대목과 진도아리랑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양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주대사습에서 초등생부문 장원을 차지했고, 최 군은 박동진 전국판소리대회학생부 장원을 비롯해 각종 경연대회 수상경력이 화려하다. 이외에도 둘 다 유영에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심청가 예능보유자를 사사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최재명 군



최보길 양

2017 Wanju Dried persimmon Festival. 제4회 완주곶감축제. 2017년 12월 15일~17일(3일간). 완주면 장선천 둔치 일원. Includes information about persimmon products and festival activities.